

종단소식

조계종

법주사 교양대 9기 수료

보은 법주사(주지 혜광)는 30일 대웅보전에서 제9기 불교 교양대학 수료식을 실시한다.

17~19일 구인사에서 하계수련 법회를 가졌다.

17일 입제식에 앞서 16일 밤 10시 관음정진 기도회 등 참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봉행된 이번 수련법회는 새벽 3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예불, 경내 참배, 설법, 108배 참회, 극기훈련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진각종

국제불교연구소 헌판



국제불교연구소 헌판식이 20일 종인원 정문 앞에서 열렸다. <사진> 연구소장 최정경사(총무부장), 상임연구원 지현정사, 비상임연구원 원명정사(문화사회부 국장), 연기영교수(동국대)를 구성원으로 한 국제불교연구소는 북한 내 복지시설 설립, 미국 LA심인당 포교지원 및 제 2심인당 개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태고종

전북종무원 분원장회의

전북종무원(원장 남과)은 24일 종무원 회의실에서 간부 및 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종무행정 평가와 국가경제회복을 위한 기원법회 및 실천운동을 근간으로 한 하반기 불사계획을 수립했다.

천주사 어린이법회 열려

정릉 천주사(주지 이규범)는 17일 2박3일의 일정으로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하는데 이어 26일 오전 10시 어린이회 첫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어린이회 정기법회는 17일 입제한 '어린이와 레크리에이션 포교 발전기원 천일기도' 백일기도와 더불어 진행되는 것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봉행된다.

봉원사 어린이 야유회



신촌 봉원사(주지 대운)는 18일 상북구민생활체육관에서 어린이회 야유회를 봉행했다. <사진> 3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는 기념법회에 이어 레크리에이션, 물놀이 등으로 진행됐다.

관음종

홍릉사 보살계 수계식

인천 홍릉사(주지 법륜)는 19일 법당에서 신도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살계 수계 법회를 봉행했다.

조동종

갈색 9조가사 통일

총무원(원장 송정)은 11일 간부회의를 열고, 종단의 가사를 보면 공단 갈색 9조가사로 통일키로 하고, 오는 11월 7일 가사불사 회향식을 갖기로 했다. 또 분담금 및 의무금 납부, 승려증 개신 등의 승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스님 15명을 제적 처분했다.

천태종

전국청년회 하계수련

전국청년회(회장 이문수)는 전국청년회(회장 이문수)는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자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잇단 훼손사건의 여파로 법당문을 걸어 잠그는 사찰이 늘고 있어 참배객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

자물통 채운 법당문

잇단 훼손 방화에 절 지키기 '교육책' 저녁때 찾아온 참배객 헛걸음 일췌

"마을이 불안하고 답답해 부처님께나 출출 털어놓고 싶어 사찰을 찾았는데 법당에 들어갈 수 없어 한집 더 지고 가는 기분입니다" 퇴직바람으로 불안해하던 김모씨(31·경기도 구리시)는 21일 저녁 8시경 남양주 수락산의 한 사찰을 찾았다가 참배도 못하고 되돌아 왔다. 법당문이 모두 굳게 잠겨 있었고 주위를 살펴봐도 법당에 들어갈 방법도, 열어줄만한 사람도 없었다. 서울 북한산의 한 사찰을 찾은 이모씨(51·서울 성북구)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 이씨는 "비록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법당이 개방되어 있으면 좋았을 것이다"고 아쉬움을 털어냈다. 불황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한적하고 넉넉한 저녁 시간을 함께 사찰을 참배하는 사람들이 부족해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헛걸음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사찰들이 저녁예불 시간 이후에는 어김없이 법당문을 잠그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낮에도 열쇠가 있어야 법당을 참배할 수 있는 사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각 사찰들이 이른 시간부터 문을 닫는다는 이유가 있다. 잇단 훼손사건 때문에 방화책으로 법당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다. 동대문구의 한 사찰 주지스님은 "밤에는 사찰이 조용한 경비원이 근무를 하기때문에 좀 안심되지만 낮에는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문을 걸어 잠그는 일도 절의 이미지 상 좋지 못한 것 같아 난감하다"며 "몇몇 사람들을 위해 법당에 불을 밝히고 문을 열어놓는 것은 역효과를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도시 인근 사찰들은 훼손 방화 등으로 인해 절 지키기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법회나 예불시간 이후에는 법당 등의 전각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많은 불자들에게 '본의아닌 불편'을 사고 있는 것이다. 거액을 투자한 경비시스템을 갖춘 사찰들도 "별도의 경비원을 고용해야 하는 현실에서 언제나 열린법당을 불자들에게 개방하지 못하는 사찰의 아쉬움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이다. 속출하는 실적자와 경제난의 가장으로 한적한 시간에 사찰을 찾는 불자들은 늘어나지만 훼손에 대한 불안감으로 법당문을 걸어 잠그는 사찰의 '죄불안식'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찰측에 신분을 밝히고 법당 열쇠를 받아야만 부처님을 참배할 수 있는 신통속도에 대한 사회적 반성이 절실하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opia.com)

경제회복 · 교육불사 중점

태고종 하반기 사업...1천일기도 · 무료급식

승려연수 · 법계고시 실시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15일 백련사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회생 지원사업 및 교육불사사업을 위하여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회의에서 태고종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국난극복기원 1천일기도를 전국사찰에서 매일 봉행하고, 매주 토요일 실직자를

위한 급식사업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경제회생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교육불사예 중점을 뒤 종무행정을 펼쳐기로 하고 8월 승려연수교육, 10월 법계고시, 11월 2일부터 보통한 합동독도수계산람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승려연수교육은 7천여 명의 종단등록 스님을 대상으로 종단과 애중심을 키우고 승려로서의 자질향상을 도모해 중도화합

과 종단중흥을 이뤄내려는 기대에서 마련됐다. 이 밖에도 태고종은 선암사 성역화사업을 종권순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0월경 근대 한국불교분교사를 재조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불교재산관리법 위헌소송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 기점으로 선암사 성역화 불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opia.com)

대광명인불자회 대창양로원서 위문 한마당



대구 대광명인불자회(회장 박석규)는 22일 사할원에서 영구귀국한 노인들이 거주하는 고령군 대창양로원을 방문, 노인위안잔치를 벌였다. <사진> 20여명의 맹인불자 및 언뜻지원 봉사자들은 이날 일제 때 일본군에 의해 사할원에 끌려간 뒤 최근 영구귀국해 양로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62명의 노인들에게 대구에서 준

비해간 점심과 떡 과일 음료수 등을 대접하고, 식후에는 사물놀이 한마당을 펼쳤다. 대광명인불자회는 대창양로원 위문뿐만 아니라 해마다 대구 화성양로원을 방문해 위안잔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opia.com)

연흥사 개원 1돌 법회 삼존불 점안식도 봉행

대구 법왕사 칠곡분원인 연흥사(주지 실상)는 21일 개원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연흥사는 이날 석가모니를 좌우 보처인 문수, 보현보살 점안식도 함께 봉행했으며, 하루 전인 20일에는 문수, 보현보살상 안에 금과 은 다리니경 등 20여 복장물을 봉

안했다. 기념법회에는 벽봉스님(승림사 조실) 실상스님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했다. 이윤호 기자

녹색환경감시단 2돌 '21세기 시민운동' 강연

대구불교산악회 부설 녹색환경감시단(단장 홍성식)은 21일 대구 흥사단 강당에서 창단 2주년 기념식 및 강연회를 개최했다. 김장근 대법청 대구지부장 신현국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는 영남대 이창기교수(사회학과)가 '21세기를 지향하는 시민운동'에 대해 발표했다. 김장근은 96년 해인골포장 건설반대운동과 청도 용천사 앞 상가 건설반대운동에 앞장섰으며 97년에는 군위 인각사 수물 반대운동 및 환경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다. 이윤호 기자



◇아치형원리를 이용해 만든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뛰어난 사찰 건축술 '아치형'

EBS-TV, Q채널 조영

무계 지탱에 가장 좋아 청·백운교 침성대 활용 미륵사지 규모도 밝혀

"청운교와 백운교, 침성대 등 우리 문화유산이 오랜 세월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아치형원리를 이용해 축조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튼튼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 과학의...에션 익산의 미륵사지와 경주 불국사의 가람배치가 두 절에 있는 석탑과 석탑사이의 2분의 1을 단위 기중으로 설정해 그 배수의 거리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을 밝혀냈다. 말과 책으로만 전해져 왔던 미륵사지 가람의 실제규모와 배치모습을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실물처럼 소개해 수학과 구조역학에 근거해 건축한 선조들의 지혜를 증명해 주었다. 김주원 기자 (jkim@buddhopia.com)

아치형 다리인 경주 불국사의 '청운교와 백운교', 사다리꼴 형태의 돌을 일정한 모양으로 둥글게 쌓은 이 두 다리의 위에서 내려누르는 힘 즉 무게를 지탱기 위해 돌 옆쪽으로 힘이 고르게 분산되는 아치형 원리를 이용해 축조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튼튼하게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 과학의...에션 익산의 미륵사지와 경주 불국사의 가람배치가 두 절에 있는 석탑과 석탑사이의 2분의 1을 단위 기중으로 설정해 그 배수의 거리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을 밝혀냈다. 말과 책으로만 전해져 왔던 미륵사지 가람의 실제규모와 배치모습을 3차원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실물처럼 소개해 수학과 구조역학에 근거해 건축한 선조들의 지혜를 증명해 주었다. 김주원 기자 (jkim@buddhopia.com)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서 차게 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가 있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재 · 팔괘: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알미논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45cm x 45cm ◎ 보급가: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4-9491 야간: (0342) 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산과 재량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지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비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내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경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지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리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리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리의 처방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례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내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꼭 필요해야만 하는가?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⑥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후 신생생일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⑩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4-9491 야간: (0342) 706-3060